칼 퇴근이 싫은 진짜 이유

(창23:1~20)

1. 사라가 백이십칠 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2.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아르바에서 죽으매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3.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4.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5.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6.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칼 퇴근이 싫은 진짜 이유>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칼 퇴근이 싫은 진짜 이유'
칼 퇴근을 싫어할 이유가 어디 있겠고, 또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인류에게 있어서 보편적으로 발견되는 현상 하나가 칼 퇴근을 진짜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의 직장에는 크게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정규직인 것이 첫째 조건이고, 두 번째가 칼 퇴근이 보장되는 직장입니다.
야근이 잦으면 그건 꿈의 직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업무 외에 상사가 이것저것 기분대로 업무를 맡겨서 퇴근 시간에 퇴근을 할 수 없는 직장이라면 꿈의 직장이 될 수가 없지요.
그리고 상사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직장인데, 상사인 과장님은 자기 일 때문에 남아 있을 수는 있어도 나, 대리는 그냥 칼 퇴근해도 되는 직장이 바로 꿈의 직장입니다.

‘칼 퇴근’

말이 아주 모진 데가 있어요. 회사 안에서 무슨 사정이 벌어지더라도 칼로 자르듯이 6시가 되면 퇴근하는 겁니다. 좋아요.

그런데 6시 칼 퇴근이 완벽하게 보장이 되어 있는 분위기여서 상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야근 때문도 아니고, 정해진 업무가 6시 이후에 계속 주어지는 것도 아닌데도 퇴근을 머뭇거리고 꺼리는 사람이 있다면 이해가 안 가지요. 정신 나간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만약에 있다면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직장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혹시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어도 그 일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럼 뭐겠습니까? 직장에서 칼 퇴근해서 갈 곳이 없어서 그래요. 가고 싶은 곳이 없어요. 오라는 곳도 없고. 딱히 할 일도 없고 하고 싶은 일도 없어요.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만나야 될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명절날 당번이나 숙직이 돌아가면 막 바꿔줍니다.

‘김 대리, 숙직 좀 바꿔주지 않을래? / 그러세요. / 김 대리, 고마워! / 뭘요. / 내가 고향 갔다 와서 떡 갖다 줄게. / 괜찮습니다.’

명절날에 할 일이 없고 갈 곳이 없는 데요. 좀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갈 데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할 일이 없으니 당번을 하나 숙직을 하나 자기 방에 있으나 똑같아요. 오히려 회사가 더 나아요. 자기 자취방에서 콜콜 냄새나는 곳에 있는 것보다 회사에서 당직하는 게 나아요. 점심도 회사 돈으로 먹을 수 있고.

여러분! 마귀 때문에 너무나 기이한 일이 벌어졌어요.

칼 퇴근을 싫어해요. 묘한 일입니다.

마귀 때문에 칼 퇴근이 싫어지는 이유는 이 세상 바깥으로 갈 곳이 없어져버린 것입니다.

원래 그런 것이 아니었거든요. 타락하기 전의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이 이 세상을 떠나고 싶은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참 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타락 이전에는 그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아의식을 갖게 되자마자 제일 먼저 갖게 되는 마음이 ‘빨리 이 세상에서 할 일 마치고 퇴근해야지’ 이게 소원이었습니다.

마귀 때문에 타락한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여간 바보들처럼 이 세상에서 칼 퇴근을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바깥으로 갈 곳이 없어졌어요. 타락하고 나니 전부 이 세상에서 뭉그적거리며 퇴근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꿈의 직장인 이 세상에서 빨리 칼 퇴근해야 하는데 다 그걸 싫어해요.

그런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서 그것이 극복이 됩니다.

그 죄악으로 나타난 보편적 현상인 칼 퇴근을 싫어하는 상태가 아브라함에게서 극복이 된다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요.
아브라함이 매장지를 구하는데 그 매장지가 헷 사람이 있는 가나안 땅입니다. 거기서 처음으로 자기의 땅을 소유하는 거예요. 역사적인 날이죠.
75세에 고향을 떠나서 사라가 127세에 죽고 아브라함이 137세입니다.
도대체 몇 년 만에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서 일부를 자기 것으로 삼은 겁니까?
62년 만에 자기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무덤이고 매장지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 안에 의미심장한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사건 자체가 말씀이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묻기 위해서 매장지를 구하는 상황인데 이런 모든 과정이 우리에게는 하나의 말씀으로 전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뭘 말씀하고 있느냐?
아브라함은 칼 퇴근을 좋아했던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칼 퇴근을 좋아한 이야기가 왜 이상한지를 좀 보세요.
아브라함이 누구였습니까?
어제 말씀드린 대로 터치다운한 사람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마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찾아올라가서 터치(접촉)하고 다운(정착)해서 머무른 사람입니다.
그 과정을 미식축구로 생각해보면 축구장에 줄이 여러 개 그어져 있잖아요. 수비수들은 못 들어오게 해서 그 줄 하나하나를 땅따먹기 식으로 전진해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도달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아브라함이 전진한 것이 뭡니까?
마음을 빼앗고 있는 것들 중에서 고향 친척 본토 아비 집이라고 하는 수비수를 극복합니다. 하나님께로 마음이 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방해가 되는 것이 고향 친척 본토 아비집의 안정된 생활권이었습니다. 그것이 발목을 붙잡으니까 그걸 뿌리치고 한 단계 나아갔어요.
그리고 아내 사라 역시 이 땅에 아브라함의 마음을 묶어두는 강한 수비수입니다. 그래서 사라를 두 번씩이나 버리게 되고 하나님께 전진합니다. 롯과 땅을 나눌 때에도 자기 기업의 생사가 결정되는 중요한 시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롯에게 좋은 땅을 마음대로 고르라고 내버려 둔다는 것은 이 땅에서의 자기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내 사업과 내 장사와 내 일이라는 수비수를 떨쳐내고 하나님께 한 걸음 또 나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

로 이삭이 버티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수비수입니다. 그 이삭을 제쳐버리고 하나님께로 마음이 도달하게 되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터치하고 다운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서 딱 터치다운이 되자마자, 마치 자동차에 시동을 걸 때에 스마트키 단추만 누르면 시동이 걸리는 것처럼, 이 땅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시동이 걸려서 본격적으로 진행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준비를 하셨느냐? 리브가가 태어나는 과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서는 이삭을 그 리브가와 짝을 맺어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찾아오셔서 약속만 주시던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에 머무시며 아브라함의 마음이 당신에게 오는가를 보시기 위해 이삭이라는 강력한 수비수를 가운데에 끼어놓고 '네가 이삭을 나를 위해 바치는지 안 바치는지 봐야겠다.'라고 해서 보셨는데, 이삭을 제쳐버리고 터치다운함으로써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서 만민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자손들 중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면서 진짜 굉장한 복의 근원이 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과연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인가를 봅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닿았으면 6점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너스 1점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굉장한 일 아닙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의 마음은 도대체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붙잡고 이 땅에서 내 마음을 빼앗아 가는 모든 수비수를 제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터치다운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예레미야 29:1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라고 하십니다.
나를 향하신 계획이 재앙일리가 없어요. 평안이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나에게 하시는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아브라함의 후손인 나 한 사람도 복의 근원이 되어야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겠다는 약속이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만 복의 근원이 되겠다는 약속을 주신 다음에 그 자손들은 복의 근원이 아니라면 그게 말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으로 주어진 것이죠. 이 땅에서 내가 복의 근원이 돼요.

그럼 이제 이 땅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터치다운이 되어서 이 땅에서 복의 근원으로서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는데, 복의 근원으로 진행되는 이 땅의 일들이 얼마나 좋아요? 그럼 하나님께 터치다운된 마음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상태에 있게 되느냐?
보너스 1점이지만 이것도 만만찮게 좋은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무덤을 사는데 막벨라 동굴을 미리 돌아보고 사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은 400세겔을 주고 사는데 이 '막벨라'라는 말이 'double'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짜장면 곱빼기처럼, 물건을 살 때 '1+1'이라고 쓰여 있는 것처럼,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double, 이중의 동굴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중의 동굴을 산 이유가 뭡니까?
본처인 사라가 127세 때까지 오래오래 같이 살다가 죽었으니 좋은 마음 반, 슬픔 마음 반이 있어서 '사라를 빨리 장사 지내고 나는 내 삶을 살아야지'라고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아내를 얻어서 잘 살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아내를 얻게 되지만 아브라함의 지금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옛날, 이 사람들의 무덤은 우리처럼 땅을 파고 묻는 것이 아니라, 동굴에 시체를 넣고 입구를 봉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블 동굴을 샀다는 것은 사라가 죽었을 때 사라의 죽음만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사라가 죽은 뒤에도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으니까 48년을 더 살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첫 번째로 구입하는 것이 매장지이면서, 그 매장지를 더블로 삽니다. 자기가 묻힐 무덤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상한 점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해주시고, 그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될 자기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된다고 하는 축복의 약속을 실행해 나가시는 단계가 됐어요. 그런데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처음으로 작은 땅을 사면서 "처음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공식을 가지고 땅을 본 것이 아닙니다.
번영하고 번성하고 영광스러운 미래를 내다보면서 작은 땅 한 조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죽음을 보면서 땅을 삽니다. 그래서 매장지도 사라를 묻을 매장지가 아니라 더블로 사는 거예요. 사라를 묻을 매장지를 굴 하나만 샀어도 가족묘라고 해서 그 굴에다 또 시체를 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더블이라는 뜻의 막벨라 동굴을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우리로 하여금 관심을 집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느냐?
막벨라 동굴을 사서 자기의 죽음을 보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번영과 영광스러운 장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처음은 미약하였으나 나

중에는 창대하리라는 공식을 따라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죽음을 보고 이 땅에서의 자기의 퇴근을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약속이 아무리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진전이 되어 갈 것을 알면서도, 아브라함의 마음은 퇴근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벨라 동굴을 산 것이 퇴근하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 세상에서 칼 퇴근을 원했는가를 알 수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 구절이 없었으면 막벨라 동굴을 샀다고 해도 그냥 자기도 언젠가는 죽을 것이니 지혜자적인 마음으로 죽음을 자각해서 예비해 두었다고 말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닌 이유가 4절에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라는 말이 나옵니다.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이 말에서 아브라함의 자아의식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나그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게르'라고 하는 말인데, 그대로 고향을 떠나 타지에 머물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의 중심은 고향을 떠난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류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토솨브'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것은 낯설고 정들지 않은 곳에서 의지할 곳 없이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그네와 거류하는 사람은 거의 같은 의미로 보이지만 그 차이가 뭐냐?
나그네는 고향을 떠났다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고, 거류하는 자라는 것은 지금 머물고 있는 땅에 전혀 마음을 붙이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나그네는 고향을 떠난 사람,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이고, 거류하는 자는 지금 이 자리에서 결코 마음을 붙이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 삼천리 방방곡곡에 있는 모든 직장인들의 마음 아닙니까?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할 때까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주어진 업무를 빨리 마치고 칼 퇴근하는 것이 이들의 모든 소망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계획들이 진행 될 것이지만, 그건 다 업무로 여겼던 것입니다. 자기일이 아니라고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일이었고,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업무였기 때문에 이 땅이 나에게는 돌아가야 될 집이 있는 직장입니다. 결코 6시 이후로는 1분이라도 있고 싶지 않은 그런 불편한 직장입니다. 축복의 약속이 펼쳐지는 곳이라고 해서 천년만년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질만한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의 특징이 뭡니까?

칼 퇴근입니다.
칼 퇴근은 뭡니까?
칼 퇴근은 소망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의 특징은 죽음을 소망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죽음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께 터치다운이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서 이룬 모든 것들을 상실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터치다운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계획이 업무가 되어서 이 땅에서 이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나를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내가 이루어야 되는 업무가 다 끝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소망이죠.

9시에 출근해서 직장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루 업무가 다 끝나는 6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6시에 업무가 깔끔하게 끝나서 나갈 때에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 기분 좋은 직장인의 퇴근 할 때의 마음을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셨느냐?
요19:30절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7-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라고 합니다.
아주 죽을 날이 가까워 온 것이 신났어요.
마치 믿음을 잘 지켰다는 말처럼, 하루 달려갈 길 다 달리고 과장으로서의 위치를 잘 감당했어요. 하루 업무가 다 끝난 퇴근 전 30분 동안 신나게 정리합니다.
‘야! 신난다. 집에 가서 아내하고 맛있는 찌개 끓여 밥 먹어야지.’ 아니면 ‘직장 동료하고 한잔 해야지’ 신이 났어요. 신이 났어.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마음이 터치다운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루어 놓으면 이루어 놓을수록 퇴근이 싫어지는 거예요. 이런 답답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칼 퇴근을 왜 싫어해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계획이 다 이루어져서 죽게 되는 거예요. 업무가 다 끝났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럼 칼 퇴근하는 것을 좋아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터치다운하지 않은 사람들은 퇴근해서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이 직장, 여기가 좋대요.
우리가 보기에 직장에서 칼 퇴근을 시키는데도 남아있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정신병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터치다운이 되어서 내가 돌아갈 고향이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장에서 부장으로 승진을 했다면 내내 직장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빨리 퇴근하고 싶죠. 승진은 승진이고 퇴근은 퇴근입니다. 승진하면 할수록 칼 퇴근이 필요하죠. 돈도 더 많이 벌고 쓸 일도 많고 만날 사람도 많고…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려는 축복의 계획들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좋아서 자꾸 퇴근을 머뭇거리는 그런 마음가짐이 생긴다면, 하나님과의 터치다운의 간격이 다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터치다운 되어서 계속 마음으로 하나님을 느낀다면 퇴근처럼 좋은 것이 없고, 이 세상에서 업무가 끝나는 죽음처럼 좋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향해 가셨고, 사도바울이 죽음을 향해 가셨고, 베드로가 죽음을 향해 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시점이고, 나로 볼 때에는 업무가 끝나는 시점이고, 이제 돌아갈 내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니까 칼 퇴근이 좋은 것이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처음으로 땅을 구입하는데 이중이라는 뜻의 막벨라 동굴을 구입합니다. 사라가 죽었을 때 자기의 죽음을 바라봅니다.
이제부터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한 후손들의 번성이라는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는데 길게, 길게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미래를 내다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죽음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의 퇴근을 바라봅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이 땅에서의 칼 퇴근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 나의 업무, 하나님의 마음속에 나를 통해 이루시려는 계획이 다 복된 계획이지만, 어찌 내 마음이 터치다운해서 하나님께 가서 머무는 것보다 좋을 수 있겠습니까? 이곳이 불편한 거예요. 축복의 약속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땅은 거북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그네이고 거류자라고 한 거예요.
이 직장 말고 나는 돌아갈 곳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직장이 낯설고 불편해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 아브라함이 어색해할 이유는 하나도 없는데, 아브라함은 번성하는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칼 퇴근의 죽음의 시간을 봅니다. 그래서 더블 동굴, 더블 무덤을 사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마음과 아브라함의 영적 유전자가 우리에게도 있어서, 직장에서 칼 퇴근하는 것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세상이라는 직장에서의 칼 퇴근을 진심으로 좋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축복의 계획을 마음대로 진행하실 수 있어요.
조금만 축복의 계획을 이루시면 그게 좋아서 퇴근할 생각도 안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서 마음 놓고 이루시겠습니까? 우리를 잃어버리시고, 하늘에 붙은 마음을 땅으로 다시 빼앗겨 버리는데.
이 칼 퇴근을 좋아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우리에게 유지해주기 위해서 일어난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 삶에서 어떤 거대한 축복된 계획을 수행하시고 실현하시더라도, 십자가에서 죽어서 그것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인 한 축복의 실현이라도 그것에 절대로 마음이 매달리지 말고 이 땅에서의 칼 퇴근을 좋아하시는 아브라함의 유전자가 계속 유지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막벨라의 이중의 동굴을 구입하던 아브라함의 마음이 나그네요 거류자로서 자기를 정의했던 그 심정, 터치다운한 사람의 마음이라면 당연한 이 마음의 자아의식이 우리 것이 될 수 있어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칼 퇴근을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